



왜 치약을 그렇게 짜는 거야?



나는 치약을 제멋대로 짜서 사용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중2이후부터 나는 쪽 개인 화장실을 사용했고 그 누구도 내게 치약은 밑에서부터 차곡 차곡 짜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눌러서 치약을 짜고 그게 불편한 적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치약은 잘만 나왔고 양치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으니 평생 충치도 거의 없이 건강한 치아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달콤한 신혼 생활이 한참 일 때 남편이 내게 물었다. 왜 치약을 중간부터 눌러서 짜고 치약 뚜껑은 왜 번번이 안 닫는 거냐고.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런 게 문제인가? 사랑해서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것 같던 사람인데 이게 뭐라고.....? 이런 걸 묻기도 하는구나를 깨닫는 자체가 충격 그 자체였다.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눌러 짜던 치약이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나는 기억이 나는 한 남편의 바람대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치약 뚜껑도 늘 제자리를 찾아갔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매일 아침상을 차리라는 무리한 부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여전히 '그깟 치약 아무데서부터 짜든 무슨 상관인가 싶다. 끝에서부터 짜든, 중간에서부터 짜든 뭐가 그리 대수란 말인가? 알아서 알뜰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지' 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남

편이 텍사스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살았던 1년간 나는 다시 치약을 제멋대로 짜면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기도 했었다. 도대체 치약이 뭐라고.....

그런데 치약 따위는 정말 거의 시작에 불과했다. 치약을 짜는 방법, 화장실 휴지를 거는 방법, 빨래를 널고 개는 방법, 청소하는 스타일, 설거지 방법, 이불 덮는 방법, 음악 취향 등등 너무 많은 것이 달랐다. 그리고 평소에는 괜찮지만 내가 힘들고 짜증이 날 때는 서로 다른 점들이 꽤나 거슬리고 피곤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면 생각보다 꽤나 불편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문화나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다. 라면은 수프부터 넣느냐 면부터 넣느냐, 탕수육 소스는 부어서 먹느냐 찍어서 먹느냐로 싸우다가 다시는 같이 밥을 먹지 않게 되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남편의 물컵이 여기 저기 쌓여가는 것을 보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소소한 결로 풍비박산이 내려면 날 수도 있겠구나 싶다.

꽤나 잘 맞고 비슷하게 보여도 개인을 깊숙이 알게 되고 같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피곤한 순간들을 인내하고 맞추며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솔직히 사랑하지 않는 타인을 내가 참아주고 양보하며 맞춰 줄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니 아마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내가 무표정으로 면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다. 연애 때부터 그러더니 20년이 다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끔은 나도 잘 모르겠는 내 감정 상태를 설명해주는 게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지만 늘 나를 세심히 바라보며 관심 가져주고 걱정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답례로 나는 오늘도 치약을 밑에서부터 꼭꼭 눌러 짜준다. 이것이 20년 차의 찌사랑이고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자기야, 왜 맨날 양말은 뒤집어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야?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p>*독점* 라미라다 힐스보로</p> <p>Collection*view* 2,716sf 방4 화3 넓은 이중 패밀리룸 \$980,000</p>	<p>플러튼 단독주택</p> <p>방4 화2 대지 6,500sf \$575,000</p>	<p>창고 Warehouse</p> <p>웨어하우스 3,265sf Industrial Condo Unit Offered \$897,000</p>	<p>*독점*오렌지힐</p> <p>오렌지카운티 시내 전체와 카타리나 섬이 보이는 숨막히는 전망을 가진 집 방5 화3 넓은대지 10,000sf 단지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집전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집 보시면 한눈에 반하실 turn key 매물입니다. \$1,198,000</p>
<p>새집 단지 분양</p> <p>플러튼,부에나팍,위티어 라하브라,애나하임 방2 화2 1,270sf 방3 화3 1,578sf \$50만부터</p>	<p>*독점*라하브라 단층집</p> <p>대지 11000sf, 방3 화3 + 넓은 보너스 룸 1,902 + 560sf 넓은 윗마당 많은 과일 나무(아보카도,오렌지 자몽,석류,무화과,마카다미아 등) \$789,000</p>	<p>뉴포트비치 상가 단독 건물</p> <p>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변화가 위치 9대 까지 파킹할수 있는 단독 주차장 스페이스 주위 상권들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Grooming shop, Deli, Coffee shop, Retail 등등 발보이 아이랜드가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 비즈니스 대박 나실 자리 임에 틀림 없습니다 \$2,250,000</p>	<p>렌트</p> <p>플러튼 하우스 렌트 방3 화2 리모델링 다되어있는 예쁜집 마루바닥 좋은 학군 새페인트 넓은 정원 \$3,000</p> <p>플러튼 타운홈 렌트 방3 화3 좋은 학군 도보거리 \$2,500</p>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